

서울 YWCA

2022 1/2 vol.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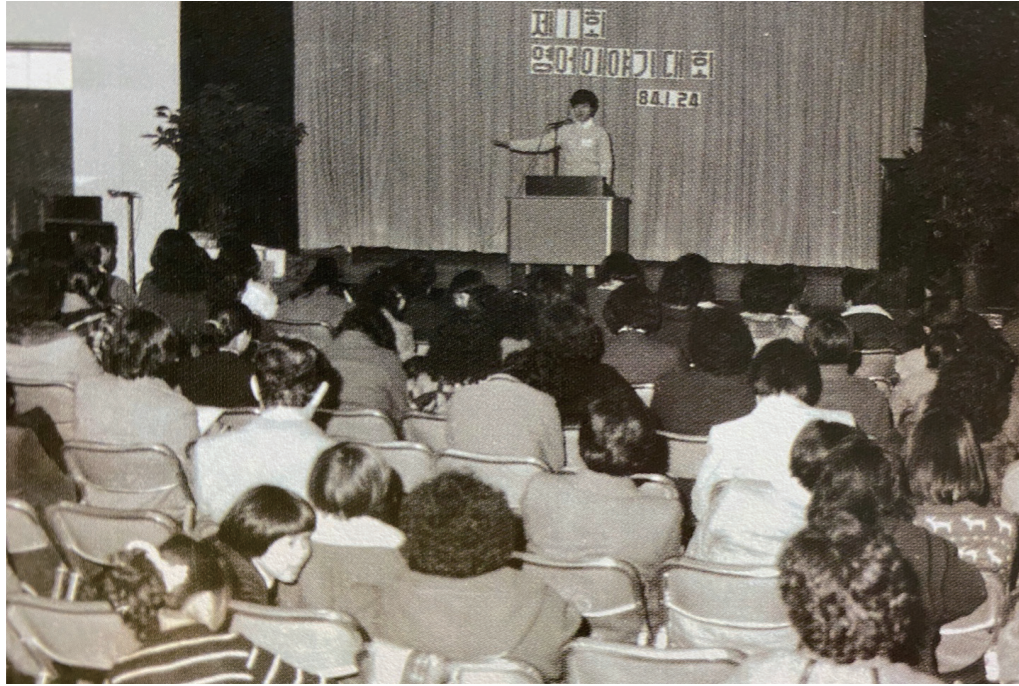
서울YWCA는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합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창립 100년



사단법인  
서울 YWCA

# 1984. 1. 24



## 제1회 영어이야기대회

서울Y는 1984년 1월 24일 제1회 영어이야기대회를 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는다. 2000년대까지 지속된 서울Y 영어이야기대회는 다른 기관에서 관련 대회를 많이 개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2021년 12월 서울Y는 의미 있는 영어스피치대회를 연다. Access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참여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낸다. (관련기사 22면)



제10회 서울YWCA 어린이 영어스피치대회 (2004. 1. 31)

###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월 공동기도

하나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나태한 삶 드러날까 무서워  
차마 벗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를 은총의 세마포 옷으로  
감싸주십시오.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답게  
가슴 시린 이들 곁에 다가가 말없이 온기를 나누며 사는  
정 깊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2월 공동기도

하나님, 속을 비운 채 깨끗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파처럼  
시련과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빛을 가슴에 품어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멋진 순례자가 되고 싶습니다.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멘

- 4 **새해의 말씀**  
리셋과 리추얼로 다시 새롭게
- 6 **특집**  
서울YWCA 창립 100년 비전정책 세미나
- 10 **현장 속으로**  
젠더 이슈 바라보기  
미안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미나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구독서비스 시장현황 조사 결과
- 16 **환경과 여성**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 18 **예술과 여성**  
바로크시대 여성 정물화가  
클라라 피터스
- 20 **서울Y 소식**  
11·12월 뉴스  
1·2월 행사안내  
1·2월 캘린더
- 27 **알림터**
- 30 **후원 소식**
- 34 **총회 안내**
- 36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서울YWCA〉 2022년 1·2월호  
 통권 제616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2년 1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이종미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리셋과 리추얼로 다시 새롭게



천영태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

리추얼(ritual)이란 원래 종교적 의식, 예전 등을 포함한 공동체적 성격으로 규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의례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나팔절을 지켰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농한기인데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연이어 지켰다. 한가로운 농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자 함이며, 지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매년 똑같이 반복한다. 무작정 반복하는 것 아니라 성찰과 다짐이 있는 의미 있는 반복이다. 이것이 리추얼의 힘이다. 우리는 일주일, 일 년을 반복적으로 맞이한다. 그때마다 지난 일주일과 일 년을 성찰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리추얼의 반복이 있기에 가능하다. 삶의 순간 순간 획을 긋는 리추얼이 없다면 앞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직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리추얼은 축복이다.

## 리추얼의 중심은 의미 있는 반복

리추얼은 비단 종교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반복적인 행함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활에 리듬감을 주는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말할 때도 리추얼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일상 속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미 있는 행동과 반복이 마치 종교적 의식과 같이 깊게 삶에 자리해 자칫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런 소소한 리추얼은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도 선물한다.

이른 아침 30분 일찍 출근해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시며 커피 향과 맛 즐기기, 점심 식사 후 산책하기, 책상 위 작은 화분 가꾸기, 매일 반복하는 경건 생활 등이 있겠다. 나만의 시간이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하고 또 잘 가꾸어야 한다. 리

## Ritual

성찰과 다짐이 있는  
의미 있는 반복

추얼의 중심에는 의미 있는 반복이 있다. 삶도 신앙도 과정의 반복이다. 이 사소한 즐거움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

리추얼이 되려면 반드시 리셋(reset)이 필요하다. 특히 새해에는 더더욱 그렇다. 리셋이란 '재설정, 초기화, 다시 고쳐 놓다'라는 뜻이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료가 용량을 많이 차지할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설정 초기화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이사야 43:19)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해도, 내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죄된 습관과 온갖 잡동사니 같은 무의미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마트 베티슨 목사는 “바르지 않은 일을 이전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시간 속에 여전히 숨어 있는 의미 없는 반복, 때로는 삶을 파괴하는 무의미한 반복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 리셋이 있는 리추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기세가 가실 기미가 없는 동안, 바이러스는 우리가 최고로 여겨왔던 가치마저 무색하게 만들었고 영적 침체와 게으름의 길을 걷게 했다. 지금 현재도 딱히 대안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 왔던 것과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다시 묻는 성찰과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다.

어려울수록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는 거창함이 없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는 신년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는 시무식으로 시작한다. 리셋이 있는 리추얼을 통해 개인의 일상과 조직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 넣어 코로나로 빼앗겼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찾아왔으면 싶다.

리셋(reset)과 리추얼(ritual)로 다시 새롭게(restart)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광야를 걷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해 보자. ♪

## Restart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 Reset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

# 서울YWCA 창립 100년 비전정책 세미나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다

서울Y는 12월 14일 창립 100년 비전정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나온 과거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창립 100년 준비위원회 비전정책분과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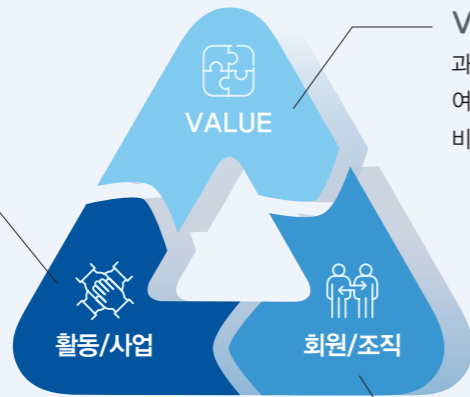
## 회원 좌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보고

- 일정 2021년 5월
- 대상 30-40대 자원활동가(위원), 50대 이상 자원활동가(위원), 청소년 회원, 청년·대학생 회원, 前 회원 5개 그룹
- 진행·발표 최정희 (마인즈아이 대표)

### 서울Y 현재 진단

서울Y가 현재는 과거 대비 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주체가 되는 단체로서 비전과 위상은 유지되고 있다. 누구든 참여하기 좋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관 정체성과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인적 네트워크는 강점이지만 세대별 인식과 욕구의 격차가 크고 실무자와 위원 역할 재정립과 사회 변화에 맞는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

**활동·사업**  
누구든 참여하기에 좋은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YWCA의 정체성과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VALUE**  
과거대비 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주체가 되는 단체로서의 비전과 위상은 유지되고 있음

**회원·조직**  
좋은 인적 네트워크는 강점이지만 세대별 인식과 니즈의 차이, 실무자와 위원 역할 재정립, 사회 변화에 맞는 조직 변화가 과제로 언급

### 서울Y 미래 제안

선택과 집중 vs 다양성이라는 회원들의 상반된 요구를 해소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기관에서 집중할 활동을 선택하고, 그 활동의 진행방식을 다양화하는 전략으로 회원들의 상반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Y 비전과 중요도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여성운동은 서울Y가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라고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미래 주체인 청년의 관심과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업, 활동과 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전체적인 사업·활동에 대해 YWCA에서 추구하는 방향 & YWCA 정체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설명과 구조화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실무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정리 필요
- 지속성 요구 사업과 일회성 운영 사업에 대한 구분과 운영

선택과 집중 vs 다양성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해소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한 사업·활동과 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YWCA 비전 및 중요도 측면에서 고도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 커뮤니케이션 강화

- 홍보를 하나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강화
- YWCA를 홍보하기 위한 전문채널, 대중화된 채널 확보 필요
- 외부뿐 아니라 내부 회원과 공유 방법 필요

### 비전에 맞는 사업 검토

- 여성 운동 (젠더 이슈)은 YWCA가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활동해야 함
- 미래의 주체인 청년의 관심과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함

##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결과 보고

- **일정** 2021년 2-6월
- **대상** 오피니언리더 10명, 신학자 8명, 서울Y 이사 12명
- **진행** 창립 100년 준비위원회 비전정책분과 위원
- **발표** 정선덕 이사

우리사회 변화의 흐름을 짚어내고 이끌어가고 있는 오피니언리더로 강도현(뉴스앤조이 대표), 김수아(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김혜숙(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컬러 앤드 포용과 다양성 최고책임자 전무), 나윤경(前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이지현(국민일보 뉴콘텐츠 부장), 이진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임은경(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최병훈(Y틴 청소년 담당 정신여교 교목), 최은정(하나금융나눔재단 차장)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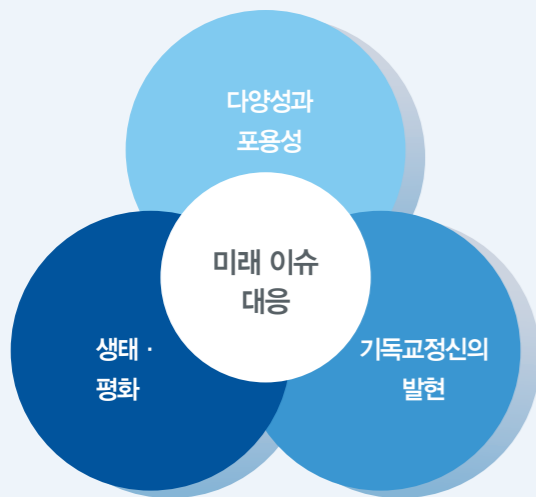
서울Y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영적 리더 신학자 그룹으로 김용수(반석교회 담임목사), 노병균(초원교회 담임목사), 박영주(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배현주(전 부산장신대학교수이자 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

사), 장윤재(이화여자대학교 교목), 천영태(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 채송희(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국장)이 함께했다. 서울Y 자원활동가 그룹 리더로 현 이사 12명도 참여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서울Y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 서울Y 활동 진단·평가, 미래이슈, 100년을 맞이하는 서울Y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나눴다.

### 주요 제안

서울Y가 다뤄야 할 미래이슈로 먼저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시했다. 기독교기관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여 복음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내부 제도, 플랫폼, 조직문화 등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현재는 정의와 여성, 성평등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는 시대라면 앞으로 미래 100년에는 생태와 평화를 위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회원, 시민 개개인의 실천과 함께 사회, 시스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비전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정신의 발현이 중요하다. 삶이 더 곤고해질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성을 갈구할텐데 이는 제도적 종교나 교회가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기독교 영성이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과 영성을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서울Y의 숙제이다.



## 소그룹 토론

- **일시** 2021년 12월 14일
- **대상** 회원 소그룹 6개조
- **내용** 회원들이 생각하는 서울Y 비전과 미래 모습 공유

회원 좌담회 &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결과에 대한 피드백, 창립 100년 서울Y 운동 제안 '비우기 그리고 채우기', 창립 100년 비전 슬로건 제안 '서울YWCA는 \_\_\_\_\_다'라는 3개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회원들 목소리를 듣고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둘째**, 창립 100년을 맞이하여 서울Y 정체성과 비전을 확실히 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 할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과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구체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젊은 세대와 공감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세대별 전략이 절실하다. 세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의 강화이다. 서울Y가 기독교와 교회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고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하며 기독교시민단체로서 정체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창립 100년 준비위원회 비전정책분과는 2019년부터 비전스터디, 역사자료 검토, 서울Y SWOT 분석, 서울Y 기독교정신 현재와 미래 워크숍, 회원 좌담회, 오피니언리더 인터뷰 등을 지속해 왔다. 서울Y 창립 100년 비전은 청소년·청년 비전슬로건 공모전을 거쳐 이번 세미나에서 회원들이 준 의견을 더해 최종 완성된다. 완성된 비전은 2022년 1월 창립 100년 정기총회 '창립 100년 비전선포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의 목소리를 담은 창립 100년 서울Y 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Y 정리 김경화 창립 100년 기획팀 부장

# 젠더 이슈 바라보기 바른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쏟아지는 젠더 이슈 기사와 대중매체 콘텐츠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요즘. 어떻게 읽고, 어떻게 비평해야 할까. 젠더 이슈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사와 콘텐츠를 읽고, 비평하는 눈이 필요한 때다. 복잡한 고민을 함께 풀어내기 위해 서울Y는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집담회'와 '젠더 이슈 기사 읽기와 비평 글쓰기 교육'을 진행했다.

##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집담회

'젠더 이슈'를 단순히 '젠더 갈등'으로 치환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권과 '젠더 갈등 프레임'에 갇힌 언론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젠더 이슈를 젠더 갈등으로 다루는 보도기사의 문제를 성찰하고, 젠더 균형 보도 방향을 모색하는 온라인 집담회가 11월 16일 서울Y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이번 집담회는 전현숙 서울Y 여성참여팀 부위원장의 사회로 언론사 최초로 젠더 데스크를 구성한 한겨레의 젠더팀장 이정연 기자,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박정훈 기자, 젠더 관점에서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처장과 함께했다.

## 젠더 이슈를 갈등으로 프레임

언론이 젠더 이슈를 갈등으로 프레임하는 행태에 대해 다뤘다. 언론은 '기업 집계 손가락 홍보물', '안산 선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온라인상 괴롭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여성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여성과 남성의 갈등으로 왜곡한다. 또 '이대녀', '이대남'과 같이 청년 세대를 연령과 성별로 특정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젠더 이슈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용어인 '젠더 갈등'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도 함께 고민했다. 젠더 이슈에 있어서 댓글창의 악성 댓글이 하나의 의견이 아닌 언어폭력이라는 점 또한 짚었다.

## 언론의 구조적 문제, 거대 포털의 문제점

서울Y가 지난 8월 진행한 총 1천건의 젠더 이슈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젠더 갈등'을 이용하고 있는 언론의 구조적 문제, 거대 포털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한겨레 젠더 데스크'를 소개했다. 패널들은 언론이 젠더 균형적인 보도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사 제공 포털의 제도 변화, 나쁜 기사는 보이콧하고, 좋은 기사를 격려하고 선택하는 소비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젠더 균형 가이드라인 마련

'젠더 균형 보도', '좋은 기사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최근 보도된 기사 중 함께 읽어 볼만한 기사들을 공유했다.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앞선 노력의 결과물인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라인', '한겨레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젠더 이슈 기사 읽기와 비평 글쓰기 교육

젠더 이슈와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글을 쓰고, 젠더 이슈 언론 보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 또한 마련했다. 11월 20일 젠더 이슈 기사 읽기와 비평 글쓰기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교육에는 경향신문에서 대중매체 비평을 담당하는 김지혜 기자가 글쓰기 워크숍을, 경

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 운영자 심윤지 기자가 젠더 이슈 기사 특강을 맡았다.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시민이 함께 참여해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눴다.

## 페미니즘 관점으로 글쓰기

김지혜 기자가 언론 환경에서 피부로 체감한 '페미니즘 기사'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했다. 현재 언론계에서는 젠더 평등적인 기사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발(백래시) 또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 글을 쓰고 이에 대해 서로 논평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실제 비평 글쓰기를 연습하기도 했다.

## '빨은' 기사, 왜 안 없어질까?

'플랫' 운영자 심윤지 기자가 젠더 이슈와 관련된 언론사 안팎의 변화들을 공유했다. 우리가 매일 읽는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이고, 어떤 기사는 아쉬운 기사인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기사를 읽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

\* '빨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전복하여, 되려 인권감수성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 용어

이번 집담회와 교육에는 예비 언론인, 언론과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미디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젠더 이슈에 관심 있는 회사원, 정치인 등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했다. 시민들은 "코로나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갈등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아쉬움이 해소되는 시간이었다.", "평소 대중매체, 뉴스 기사를 보며 느끼던 뭔가 모를 불편감, 젠더 차별을 정확한 언어로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공유했다. 앞으로 우리 언론이 젠더 이슈 뉴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을 돕고 나아가 사회통합과 성평등사회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리\_ 이지은 여성참여팀 활동가

젠더 균형 보도를 위한 온라인 집담회



페미니즘 관점으로 글쓰기

여성청년 글로벌리더십 육성 – 미얀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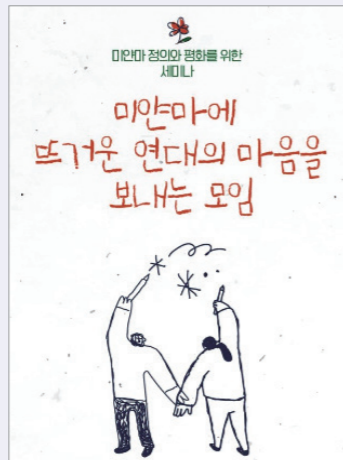
# 미얀마 시민에 연대합니다

서울Y는 12월 2일, 3일, 10일 총 3회에 걸쳐 미얀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다. 미얀마는 어떤 나라이고 쿠데타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자리였다. 서울Y 회원과 국제단체 실무활동가, 특히 여성과 청년이 미얀마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 제1회 미얀마, 쿠데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강사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쿠데타 발생 후 11개월이 지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미얀마 내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필사적이다. 군부쪽에서는 잇따른 탈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은 정당성 없는 국가 폭력의 산증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현 상황은 '군부 없는 새 미얀마 건설을 향한 혁명의 과정'이다.



정의와 평화가 기반이 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 제3회 미얀마 난민의 과거와 현재

강사 **Mitos Urgel** WEAVE 대표

미얀마에서는 소수민족 배타정책으로 난민이 발생한 지 30년이 넘었으며 매혹손 지역에만 9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 난민들이 있다. 위브는 1990년에 설립된 미얀마 난민 지원기관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기본 교육과 수공예품 제작 교육을 제공하

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와 쿠데타로 인해 위브페어트레이드(WEAVE Fair Trade, 위브 소속의 공정무역기관)의 수입은 반으로 줄어들고, 지원해야 할 난민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위브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난민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성평등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전해진 미얀마의 현재는 아픈 소식들로 가득했으나, 온라인 줌은 뜨거운 연대의 기운으로 가득찼다. 세미나를 통해 미얀마 상황을 입체적으로 알릴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국민통합정부와 군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가 안착될 때까지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정리 **김진주** 국제협력팀 간사

## 제2회 미얀마 여성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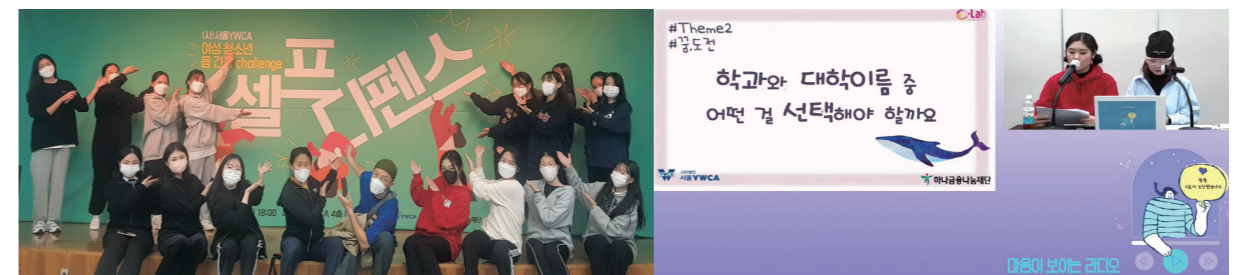
강사 **Nant May Than Htay** 미얀마Y 실무활동가

Z세대, 여성 승려, 시니어 여성, 교사, 의료보건 공무원 등 다양한 여성들이 풀뿌리 단위로 시위를 쉽게 이끌고 있다. 이들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타, 살해, 체포 당하고 있다. 어떠한 인권존중이나 적법한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구금당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치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미얀마 여성들은 여전히 군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서울Y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성 청소년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재단 후원으로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 Better Life for Girls'을 주제로 총 4가지 도전을 통해 여성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변화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기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 5명 중 4명은 신체활동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은 146개국 가장 신체활동이 적고 여성 청소년의 운동 부족 비율은 97.2%에 이른다.<sup>1)</sup>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우울, 불안, 걱정, 두려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오는 이유로 보이며 실제 청소년의 학업으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청소년은 66%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돌봄위기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다.<sup>2)</sup>

서울Y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며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3개월에 걸쳐 약 3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몸 건강, 마음 건강, 영양 건강, 변화 이야기' 도전에 함께했다.

정리 **양진화** 청소년팀 부장

1) 세계 청소년 10명 중 8명 '운동부족'. 한국은 '최악'이었다. 중앙일보 2020. 12. 7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상태. 한국아동복지학, 정익중 · 이수진 · 강희주(2020)

## 여성 청소년 몸 건강 Challenge

스포츠활동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 도전정신을 갖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스포츠문화 체험활동과 셀프디펜스 교실 체험!

## 여성 청소년 마음 건강 Challenge

여성 청소년, 특히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중3, 고3 여성 청소년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온라인 마음 건강 토크콘서트. 사전에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 받아 소개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

## 여성 청소년 영양 건강 Challenge

연말맞이, 새해맞이, 방학맞이, 졸업맞이 등 4가지 콘셉트로 여성 청소년에게 따뜻한 집밥 배달!

## 여성 청소년 변화이야기

코로나19로 졸업식을 경험하기 어려운 중3, 고3 여성 청소년을 위해 졸업사진 촬영 이벤트를 전문 스튜디오에서 진행.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아날로그 감성 사진을 촬영, 액자에 넣어 선물 전달!

# 구독서비스 시장현황 조사 결과 자동 연장 해지 간소화하고 환불 규정 잘 살펴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시·공간의 경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독서비스가 나오면서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서울Y는 소비자의 이용 구독서비스의 이용행태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 1. 구독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 조사 시기  
1차 : 2021년 6월 16일 - 23일  
2차 : 2021년 9월 10일 - 15일
- 조사 대상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성인 남녀(임의할당표집)  
1,000명(1, 2차 각 500명)
- 조사 내용  
구독서비스 전반적인 인식, 이용행태 등

## 2. 구독서비스 시장현황 실태조사

- 조사 시기  
1차 : 2021년 7월 19일 - 8월 18일  
2차 : 2021년 8월 13일 - 9월 10일
- 조사 대상  
1차 : 무제한형 구독서비스  
2차 : 정기배송형 구독서비스
- 조사 내용  
구독서비스 요금·가격, 기간별, 요금제별 가격 비교, 기타 혜택 등

## 이용자 1인당 월평균 23,353원 지출

응답자의 89%가 구독서비스를 알고 있었고, 서비스 차별성(59.2%)과 필요성(52.5%), 향후 이용의향(65.4%)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서비스 유형(표 참조)별로는 '무제한형'의 인지도(99.9%)와 이용 경험(88.3%)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콘텐츠 제공형'의 선호도(93.5%)와 이용률(67.8%), 향후 이용의향(76.2%)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비자는 월평균 2.7개(이용자 기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며, 23,353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 절반 이상이 이용료가 비싸다고 인식

응답자 절반 이상 '구독서비스 이용료가 비싸다'(56.6%) 인식하였으나, 월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 소득 대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것(61.7%)으로 나타났다. 구독과 렌탈 서비스 비교 결과, 월평균 이용 개수는 '구독' 2.7개, '렌탈' 1.6개로 구독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월평균 요금은 렌탈(43,329원)이 구독(23,353원)보다 많았고, '소득 고려 시 부담이 된다'는 렌탈(23.9%)이 구독(1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구독서비스 시장 확대와 이용 편의성으로 인해 이용률과 지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 구독 기간별 요금 비교

서비스 요금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1년 구독 유지 가

정 시 연 단위 정기구독이 월 단위 정기구독 대비 최대 83.2% - 최소 16.7% 저렴하였으며, 멜론, 플로, 벅스, 카카오톡 4개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요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정기구독이 기간 이용권의 89.3%-99.1% 수준으로 나타났다.(단, 벅스는 월 정기구독과 기간 이용권 요금이 동일)

\* 3개 요금제(무제한 듣기+오프라인 재생, 무제한 듣기, 모바일 무제한 듣기) 비교

## 프로모션이 구독서비스 가입·유지에 효과

구독은 자발적 요인보다는 '1개월 무료이용 등 프로모션'을 계기로 이용(43.7%)하게 되고, '무료체험이나 할인 프로모션 이용 후 해당 제품/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구독을 지속(55.2%)하고 있어 기업의 프로모션이 구독 서비스 가입·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바일 콘텐츠 63.8%(58개 중 37개)가 가입 시 3일에서 3개월까지 무료체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무료체험 시 결제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무료체험 기간 완료 전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입력된 결제정보로 월/연 구독 결제가 진행되었다.

## 해지 가능과 환불 가능은 달라

7일 이내 미사용 시 청약철회가 가능한 서비스는 58.6%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58곳 중 34곳)였고,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환불해 주는 곳은 11개 (18.9%) 뿐이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구독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고, 정기 배송 서비스에서 환불·취소 가능 시점이 결제일, 배송일, 수령일 등 서비스 제공업체마다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 결제 단계에서 사업자의 환불 규정을 정확히 고지하여,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Y** 정리 **김진아** 소비자환경팀 활동가

\* 취소·환불 가능 시점 예시 : 주문 마감 전까지 / 배송일 00일 전까지 / 정기결제 전까지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Y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무료체험 자동 연장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지 방법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중도 해지 환불에 대한 합리적 분쟁해결 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 구독서비스 이용행태

구분	세부내용	세부 카테고리	인지도	이용경험	현이용	이용의향
무제한형			99.9	88.3	77.6	89.2
콘텐츠 제공형	디지털 콘텐츠를 무제한 또는 일정량 이용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콘텐츠, 도서/웹툰, 소프트웨어, 지식콘텐츠	99.2	82.2	67.8	76.2
제품 이용권형	일정 금액을 내고 일정량의 제품과 서비스 이용	생활서비스, 오프라인 매장 제휴	49.6	5.8	2.5	30.0
멤버십형	구독기간 내 부가서비스 추가 제공	유통(쇼핑 멤버십)	90.3	55.8	41.4	48.7
정기배송형	특정제품을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배송	식음료, 반려동물 용품, 의류, 화장품, 기타 정기배송	66.0	15.9	5.2	51.8
구독형 렌탈	제품·서비스 이용 후 반납, 약정기간 및 위약금 없음	자동차, 장난감, 그림	55.9	7.0	2.1	20.7





#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구미정**  
기독교 인문학자  
승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은교회 목사

한국말은 움직씨(동사) 중심이다. '사랑해'라고 말하면 끝난다. 이름씨(명사) 중심의 서양말(이를테면 영어나 독일어 따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지 헛갈린다고 탄죽을 걸 테다. 서양말은 움직씨만으로 문장이 되지 않는다. 임자말(주어, I)+풀이말(술어, love)+부림말(목적어, you) 순서로 말해야 비로소 뜻이 통한다. 우리말과 서양말이 '서르 사맛디 아니'하는 이유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서양인은 사람과 사물이 각각 독립해 있다고 믿지만, 우리(동양인)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여 개체 중심인 서양인의 언어가 이름씨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게 당연하다면, 관계 중심의 우리 언어는 움직씨 중심으로 발달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기가 거의 모든 이름씨 뒤에 '하다'를 붙여 움직씨로 만드는 기발한 발상이 세상 어느 말에서나 통하지는 않을 터. 티브이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1> 결승전을 보며 "역시 이승윤이 이승윤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말이 지닌 풍부한 매력이 아닐는지.

'언어는 존재의 집'(하이데거)이라고 했던가? 한국말이 움직씨 중심이라 그런지, 한국이라고 하면 '다이내믹 코리아'가 떠오르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빨리빨리'가 떠오른다. 성미 마른 조급함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빨리빨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한국인의 왕성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좋게 봐줄 수 있으리라.

## 천지의 창조주

오래전 나는 어느 책에선가 "하느님은 명사(이름씨)가 아니라 동사(움직씨)"("한 글자로 신화하기", 대한기독교서회, 2007)라고 썼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살아있기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이름씨 안에 가두는 일, 다시 말해 교리로 박제화하는 일이야말로 배교(背敎)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하나'(이름씨)이신 님이라기보다도 '~하는'(움직씨) 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성서를 펼치면 정말 그렇다. 하나님을 어느 한 가지 모습으로 고정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하느님의 백한 번째 이름」(엘리자벳 A. 존슨 지음, 함세웅 옮김, 바오로 딸, 2001)이라는 책이 다 나왔을까? 그분은 '사랑하는' 님, '치유하는' 님, '보호하는' 님, '구원하는' 님, '심판하는' 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중 압권은 단연 '천지를 지으신' 님이다. 이 고백은 나의 개인 취향이 절대 아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서의 맨 앞자리에 놓인 창세기 1장 1절도 그리 말하고,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신앙의 정수를 압축과 일로 담아낸 사도신경의 첫머리도 그리 적고 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창세기 1:1) 기독교는 이 고백 위에서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고백에서 출발한다. 더러는 구약성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뭉뚱그리며 '구약성서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2세기의 마르키온이나 우리 시대의 도올 김용옥을 보라), 틀린 소리다.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이스라엘 족속의 이집트 탈출기(출애굽기)가 구약성서의 맨 앞에 와야 하는데, 창세기에 자리를 빼앗겼지 않은가 말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선언한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천하 만물이 다 그분께 속했다. 왜냐면 그분이 손수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내 손으로 뜯 목도리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다칠세라 벌벌 떠는 판에, 하물며 온 세상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야!

## 일하는 신이라니...

한데 저 위대한 고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포로로 살던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적잖이 당황스럽다. 고대인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신 대(對) 신'의 싸움이 아니던가? 이스



엘 대 바빌로니아의 전쟁이란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야훼(여호와)와 바빌로니아의 주신(主神) 마르두크가 싸운다는 의미다. 이 대결에서 바빌로니아가 이겼다는 것은 야훼보다 마르두크가 세다는 뜻이므로, 패배한 신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게 통상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떠돌이 난민 생활을 하던 포로기 신학자들은 그런 게임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믿는 신은 기껏해야 '민족 수호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졌다. 말하자면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 만드셨다(창세기 2:7)는 표현이 당대에 일으켰을 파장을 생각해 보라.

고대 세계에서 노동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주전 8세기경)만 해도 노동은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저주라고 악담을 퍼부를 정도였다. 노예제가 자연스럽게 용인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인간답다'는 말은 '일하지 않는다'는 말과 매한가지였다. 그런 판에 '일하는 신'이라니, 게다가 신이 인간을 지은 목적도 "땅을 갈 사람"(창세기 2:5)이 필요해서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인가? ♪ (다음호에 2편이 이어집니다)

\* 창립 100년을 맞아 YWCA 정체성인 기독교여성애를 주목하고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모색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구미정 교수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를 즐긴다.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 풍토에 자유롭고 경쾌한 이야기로 생명을 수놓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자.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로 신화하기」, 「두 글자로 신화하기」, 「그림으로 신화하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교회 다시 살리기」, 「작은 교회가 답이다」, 「생명의 해방」 등이 있다.

# 바로크시대 여성 정물화가 클라라 피터스 Clara Peeters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바니타스 초상화」 1618.  
나무에 유채, 37x50.2cm. 소장 미상

클라라 피터스는 17세기 현재의 벨기에 안트베르펜 (Antwerpen) 출신의 화가로 그의 작품이 오늘날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사후 350여 년이 지난 2016년부터다. 피터스에 관한 기록은 1594년 5월 15일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1639년에 결혼했다는 것밖에 없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학자들은 그로 추정한다) 그래서 그림의 연도나 서명 정도만으로 그의 삶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피터스가 활동했을 당시 그가 살던 플랑드르 지방은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의해 통치받고 있었고, 독립 벨기에 왕국이 수립된

것은 1831년이기 때문에 그는 네덜란드 바로크 화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피터스는 식탁 위 정물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정교하고 우아하게 그려진 식기들, 음식들, 꽃병, 금화, 보석 같은 것들로 채워진 식탁은 어두운 배경의 전형적 네덜란드 바로크 양식을 띠고 있다. 피터스의 그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정교함을 보이고 있으며 질감표현이 뛰어나다. 최초로 연도를 표기한 작품은 1607년에서 1608년 동안 완성되었는데, 이 당시 그의 나이가 13-14세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실력으로 보아 학자들은 그가 화가 로시아스 베르트로부터 전문적인 유희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1607년부터 1621년까지의 피터스의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후 그림을 그만둔 것은 결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57년이라 표기된 그림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그의 죽음도 1657년 이후로 생각되는 경향이 짙다.

### 정물화 속 식기에 자신의 얼굴을 그린 최초의 화가

클라라 피터스는 정물화 속 반짝이는 식기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최초의 화가

다. 고블릿이나 금박 입힌 컵 같은 식기 표면에다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작게 그려 넣었기 때문에 관람자는 세심하게 관찰해야 발견할 수 있다. 나무판에 유채로 그린 1611년 작 「포도주잔, 말린 과일, 과자가 있는 정물화」에서도 그의 숨겨진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탁자 위 가운데 정면에는 뚜껑에 조각상이 새겨진 화려한 황동 고블릿이 있고 그 뒤 흰 접시에는 견과와 견과일들이 담겨있다. 그 뒤로는 군청색 주전자에 배치되어 있으며 베네치아풍의 와인잔에는 적포도주가 담겨있다. 왼쪽 화병은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오른쪽 접시에는 프레첼 종류의 과자들이 담겨있다. 피터스는 정면의 고블릿 뚜껑 바로 아래쪽 볼록한 부분에다 반사된 자신의 상반신을 그려놓음으로써 화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는 부를 축적한 새로운 시민계급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런 식기와 맛있는 음식, 이국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피터스의 작품 속 소재들의 고급스러움은 이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클라라 피터스의 작품 구매자들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사람들의 욕망을 파고든 예술가

17세기 네덜란드의 정물화는 바니타스인 경우가 많다. 바니타스는 1550년경부터 1650년경까지 네덜란드 레이텐을 중심으로 많이 그려진 정물화로 죽음의 불가피함, 세속적 쾌락의 무의미함, 덧없음, 부활과 영생 등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다룬다. 레이텐은 인간의 원죄와 엄



「포도주잔, 말린 과일, 과자가 있는 정물화」 1611. 나무에 유채, 52x73cm. 프라도미술관 소장

격한 윤리적 기준을 강조한 칼뱅주의 신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니타스화가 유행한 것도 수궁이 갈 만하다. 피터스가 1618년 나무판에 유채로 그린 「바니타스 초상화」에는 멋진 고블릿, 금도금된 그릇, 꽃, 금화와 은화, 반지와 팔찌, 비녀, 주사위 등이 놓여있는 탁자 앞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 그는 머리와 목, 팔에 보석 장신구를 하고 레이스 깃이 달린 고급스런 겹옷을 걸치고 오른손에는 비녀를, 왼손에는 거울을 들고 시선은 탁자와 반대를 향하고 있다. 그림 속 여인은 클라라 피터스 자신으로 추정되며, 여인의 오른쪽에 떠 있는 비눗방울을 통해 이것이 바니타스라는 것을 드러낸다. 탁자 위 화려한 것들은 세속적 부와 쾌락을 상징하고, 비눗방울은 덧없음을 상징한다. 여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 소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거울을 통해 자아를 통찰하면서 세속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클라라 피터스는 고도의 숙련된 기교로 사물들을 정교하고 우아하게 그려냄과 동시에 사람들의 욕망을 파고든 예술가였다. 늦게나마 미술사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 다행이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컬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여성

### 창립 99주년 기념예배·찬양집회

서울Y는 12월 9일 창립 99주년 기념예배와 찬양집회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예배 말씀은 노병균 목사(초원교회 담임)가 창세기 21장 1-7절 '돌보시고, 행하셨으므로'라는 주제로 전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방(찾아오심)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자손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서울Y도 심방의 축복을 받은 기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100년을 맞이할 것을 권면했다. 이날 모인 헌금은 아이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헬렌김 선교사에게 전달했다.

기념예배 이후에는 고형원 전도사가 이끄는 부흥한국팀을 초청해 찬양집회를 드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 마루 새 단장 감사예배

서울Y는 12월 14일 마루 새 단장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로 설치된 멀티 스크린을 통해 영화 <라라걸>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눴다.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 담임)가 에스더 4장 7-17절 '틈을 열고 나가라'고 전했다. 마루 새 단장은 하나님께서 서울Y에게 허락하신 '틈'이며, 에스더가 왕후라는 '틈'을 통해 유대인을 구했던 것처럼 서울Y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틈을 기회 삼아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마루가 청소년의 소통과 성장, 사회참여, 심과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봉천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2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펼쳤다. 현대자동차(사옥연구센터), 봉삼회, 장튼유헌병원, 성덕교회, 지구촌교회, 갈릴리교회 등 6개 기관에서 김장김치 후원에 동참했다. 김장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215세대에게 각 10kg씩 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 영등포

#### 취업박람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2월 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영등포구청과 함께 2021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구직자 193명과 구인업체 22곳이 참여했으며, 1:1 현장 및 화상 면접이 진행됐다. 이밖에 이력서용 사진 촬영, AI 면접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 강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최우수상' 수상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강남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가 2021 제9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정책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총회는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청참위는 'Shield together-빠른 예방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남녀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백신 접종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대회가 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권리 증진의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

### 노원

#### 여성일자리창출 거버넌스 구축회의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12월 8일 2021 어른 및 복지분야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회의를 열었다. 노원구 소재 어르신 일자리기관과 어르신 복지센터, 브레인 트레이너협회, 대한노인회 등 7개 기관이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협력적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구현되고,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 누리봄

#### 특별전시회 '꽃이 피었습니다'

누리봄은 11월 13일 누리봄의 사계절을 주제로 특별전시회 '꽃이 피었습니다'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었다. 누리봄 여성과 아이들이 지난여름 3개월간 배운 보테니컬 아트 작품으로 총 12점이 출품되었다. 누리봄 후원자와 관계자 360여 명이 방문해 관람했으며, 일주일간 전시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위로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감사와 치유의 장이 되었다.



### 신규회원 만남의 날 '어서와~ 서울Y는 처음이지'

서울Y는 12월 15일 올 한 해 새롭게 서울Y와 함께하게 된 신규회원을 초청해 '신규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 조성된 서울Y 회관 가상공간에서 Y퀴즈 온 더 블럭, 나에게 맞는 Y활동 유형 찾기, Y회관 퍼즐 맞추기 등 소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Y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에서 노년기의 회원까지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며 조화를 이루는 서울Y 회원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 Access 영어스피치대회

서울Y는 12월 17일 마루에서 Access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1명의 청소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해 그동안 갈고닦은 영어 실력을 맘껏 뽐냈다. Best Speech상을 받은 함서윤 학생은 힘든 유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에 정착해 현재를 즐기며 힘찬 미래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유창하게 발표했다.

Access는 미국 국무부 후원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주한미국대사관과 손잡고 서울Y가 주관해 한꿈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함서윤 학생과 이복희 국제협력팀 위원장



###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1월	2월
• 일시	1월 13일(목) 19:00	2월 17일(목) 19:00
• 주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 문의	02-858-4515	02-951-0187

### 영등포 원데이 클래스

• 문의 02-858-4514

과정명	일정	내용	교육비
티타임에 어울리는 스콘 만들기	1월 13일(목) 10:00-13:00	앙버터스콘, 대파치즈 스콘 만들기 실습	5만원 (재료비 포함)
브리오슈 도넛과 튀일 만들기	1월 20일(목) 14:00-18:00	샌프란시스코식 브리오슈 도넛과 아몬드 튀일 만들기	7만원 (재료비 포함)

### 노원 신규프로그램

• 문의 02-951-0187

과정명	일정	교육비
남성커트베이직	1월 3일- 2월 7일 (매주 월) 14:00-17:45	10만원 (재료비 별도 7만원)
창의아동독서 미술지도사 (독서미술지도사3급)	1월 5일-3월 2일 (매주 수) 10:00-13:00	12만원 (교재비 별도 4만원)
실버인자놀이 지도사과정	1월 5일-1월 13일 (월-금) 9:30-12:30	20만원 (교재비, 재료비 별도 6만원)

### 제100회 정기총회

서울YWCA 제100회 정기총회가 2022년 1월 20일(목)에 열립니다. 제100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13:30
- 문의 02-3705-6001, 6017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합니다

# CALENDAR

2022 **1**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3 신년예배 10:30	4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정책분과 13:00	5	6	7	8 월례회·재교육 신년모임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2일) 10:00
10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1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준비 회원·모금분과 13: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세이프맘·간병사 (~12일) 10:00	12	13 · 여성청소년 몸건강 챌린지 9:00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14	15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2일) 14:00 · Y-틴 총회 13:00
17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8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9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제100회 정기총회 13:30	21 위원회 강남Y 11:00	22 · Y-틴 협의회 11:00
24 위원회 봉천Y 11:00	25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6 · 봉천 시설운영위원회 11:00	27	28	29 · 대학·청년YWCA 협의회 11:00
31					

# CALENDAR

2022 **2**

월	화	수	목	금	토
	1 설날 · 누리봄 설날 홈커밍데이 (~2일) 9:00	2	3 위원회 재정부 11:00	4	5
7	8 이사회 10:00 사무총장 이·취임예배 14:00	9	10	11 · Access 클로징 세레머니 15:00	12 월례회·재교육 정기총회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피스톡 정기회의 11: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6일)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6일) 10:00
14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5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6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세이프맘·간병사 10:00	17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18 위원회 강남Y 11:00	19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씽크머니 정기회의 11:00
21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2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3	24	25	26 · 그린Y 정기회의 11:00
28 위원회 봉천Y 11:00					

(사)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후원

# 이웃의 내일을 밝혀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땐 작은 빛 하나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밝혀주세요

서울YWCA 나눔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이 되어주세요

##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자립준비 교육 (금융·진로·인문학교육 등)
- 1:1 멘토링 (정서적 지지·일상생활 가이드)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 법률 자문 연계

##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공동작업장 상시판매소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 가정폭력피해여성 아동 생활 지원

##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 혹한·혹서기 냉난방 물품, 전기·가스요금 지원
- 건강키트, 영양식사 제공
- 기후재난 긴급지원 (의료품, 생존기금 등)

## A 기금

서울YWCA 후원

- 서울YWCA 고유 목적사업 후원 (여성인권·기후위기대응·청소년 지원사업·평화운동 등)
- 지속가능한 서울YWCA를 위한 후원

후원금 입금계좌  
농협은행 317-2021-0710-91 문의 02-3705-6034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캠페인 소개 영상 보기



## 알림터

### 공동기도문 집필 감사합니다

2022년 공동기도문은 김기석 목사 (청파감리교회 담임)님이 집필해 주십니다

### 회원 소식

**안윤주** 평생회원·소비자환경팀 자문위원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11월 4일 2021 두산연강재단 환경학술상 대상 수상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의 악영향 규명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진흥에 기여

제4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2021년 11월 25일  
**김태연**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심혜원·임나형** 단체부문 장려상 수상

**정수경** 이사·누리봄 위원장  
2021년 12월 8일 보육사업 발전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오현아** Y-틴·온새미로·이대병설미디어고교  
2021년 12월 7일 우수자원봉사자  
서울시 중구청장 표창

**김수희** 평생회원·전 평생체육팀 위원  
2021년 12월 22일 부친상

100년을 향한 Happy Together  
2021 서울YWCA 생명살림 작은 바자회

## 후원 감사합니다

광동제약	이뱅와인
농심	인투스타트업
동서식품	일양약품
롯데제과	전한
매일유업	제이앤비
밀알	주식회사 흥진경
본사랑재단	코코메디의원
빙그레	쿠잉앤즈
삼성전자	풀무원재단
서도비엔아이	하늘에커피
서울유우협동조합	한국야쿠르트
서진션	해태
스킨메드	CJ ENM 커머스부문
아모레퍼시픽	CJ 제일제당
에이블씨엔씨	LG생활건강
오뚜기	LG전자
웰코스	NS홈쇼핑
위니아대우	SPC
유한킴벌리	

###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월 11일(화)-12일(수) 2월 15일(화)-16일(수)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0세 이하 여성	10:00-18:00	10만원
세이프맘			
간병사	60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

### 병원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외래 진료나 당일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에 동행하면서  
복잡한 병원 업무를 편안히 도와드립니다.

-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서울 시내 병원
- 방법 이용일 3일 전까지 전화상담 후 온라인 결제
- 비용 기본 4시간 72,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www.ywcacare.com
- 문의 02-3705-6071

### 편리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Play스토어에서 '서울YWCA'를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기반 앱 스토어에서(iOS 기반:아이폰 제외)  
'서울YWCA 생활돌봄&요양' 앱을 설치하시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은 물론 돌봄전문가로  
일 자리를 찾고 계시는 돌봄회원님도 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일정 확인은 물론 구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 주름과 탄력 모두 바로 잡는 더블 안티에이징의 완성

### 수려한 효비담 발효크림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발효의 힘, 이제는 발효한방이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2021년11월

## 특별후원



### 일시후원

- 청소년장학금 기영숙

이종임 최 불 최충만(최미소)

##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2021년 회보 '하나님의 정원' 칼럼 연재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1년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연재

## 북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나은 김난희 김민아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A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선희 양진화 여현주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율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종미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주동일 최동수  
 최 불 최수경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도서후원 정모아 Hannah Lee

## 내일빛캠페인



김경화 김영심 김은희 민혜경 양선희 이경연 이유림 이종미  
 조연신 한혜영

## 복지사업단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한주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변옥균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선희 양수경 양진화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관우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A  
 조성환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불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흥근표

## 난민소녀 학교 보내기 후원



김정순 송순옥 율요까페 이홍자 임은유 정수경 조종남

## 핑크박스 후원



구영숙 박대화 배정미 염현경 오경아 우정현 이윤선 이재림  
 임지영 조순영 채서은 최경자 최유진(우호정)

## 월 CMS 후원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보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춘호 강총모 강하차  
 강형식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정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희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윤 곽민정 곽승희 곽지영 곽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형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용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희B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옥  
 김나영 김나은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희 김병호 김병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한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A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은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소정 김소희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연정 김애스터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순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갑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유진 김윤나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지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A 김정순 김정애 김정은  
 김정완 김정은 김정철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중문 김중숙  
 김중용 김중운 김종진 김종하 김주나 김주한 김준경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 진 김진숙A 김진숙B 김진주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배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춘현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B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A 김현주B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A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호진 김홍우 김하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 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윤경 남은희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수연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옥 박경지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A 박경희B 박경희C 박광일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순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소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A 박소현C 박순애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슬 박은별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경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자 박효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신드라운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B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지윤A 성지윤B 성지희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울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혜현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하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주 신연식 신영순 신용자 신우람  
 신지숙 신지윤 신청희 신충섭 신현미 심경호 심다영 심영란  
 심재원 심정자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국 안정희A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선희 양세진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경자 엄수길 여명진 엄명경 엄문철  
 엄미행 엄용희 엄은애 엄지수 엄지희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환 왕청식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영 유봉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연숙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유경례 유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연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수화 윤순민 윤아름 윤은희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B 이간우 이간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자 이금재 이금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돈행 이동숙 이동우 이동운 이동은 이동현  
 이명순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미숙 이미자 이미정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A 이민자 이민정 이범재 이병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석초 이선덕 이선미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소영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숙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재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철 이승한 이승현 이승혜 이승희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에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A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B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A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A 이정석B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재욱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좌녕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종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천희 이춘옥 이충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재B 이한국 이현미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희남 이희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인 임등자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소영 임완철 임재영 임정자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현 임지현 임지혜  
 임한솔 임현정 임현주 임혜리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영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숙 장혜영  
 장휘진 전덕기 전민구 전봉숙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우오 전운숙 전은경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한솔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미희  
 정민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연 정서연 정서진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B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운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A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길수 조남익 조명희 조미남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신 조예은  
 조용선 조윤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춘숙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흥신  
 주영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성호 차지혜 차학주  
 채승화A 채승화B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초혜민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불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혜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윤영 최유정 최윤주 최윤희  
 최은주 최재국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희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혜원 최희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윤경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우 한정원  
 한지현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자영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영주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성연 황성연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중앙이엔씨 (주)제이티 (주)체협왕

# 세상의 모든 주름을 위한 레티놀라운 진화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



IOPE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YWCA 제100회 정기총회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13:30

서울YWCA 제100회 정기총회가 2022년 1월 20일(목)에 열립니다.  
제100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서울YWCA 회장 이 유 림  
사무총장 양 선 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합니다.

## 총회 순서

개회예배	회장 이유림
총회사	회장
목적제창	다같이(일어서서)
추모	회장
서기위원 지명	회장
시상 - 감사패·봉사상·근속상·회원증모상·정광모상	회장
진행규칙위원장 및 위원 지명	회장
계수위원 지명	회장
진행규칙 낭독	진행규칙위원장
전회의록 통과	회장
2021년도 감사보고	감사 오윤숙
2021년도 결산보고	회계 최한나
2021년도 사업보고	사무총장 양선희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회장
- 2022년도 사업계획(안)	사무총장
- 2022년도 예산(안)	회계
출연재산 채택	회장
정관 변경	회장
공천위원 선출	회장
창립 100년 비전 선포	부회장 한혜영
폐회예배	부회장 한혜영·조연신
회가제창	다같이(일어서서)
폐회선언	회장



## 김 필 례 광복과 여성운동의 선구자 (1891-1983)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국비 유학생으로 알려진 김필례 선생은  
일본 유학에서 경험한 YWCA 활동을 바탕으로  
1922년 한국에 YWCA 창설을 주도했다.  
한국YWCA와 광주YWCA 초대 총무가 되어  
농촌운동과 애국계몽,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썼다.

일제강점기 엄혹한 상황 속 민족자립교육에도 앞장서며  
치치하얼 이상촌, 정신여학교, 광주여성야학교 교사로서 헌신했다.  
3.1 만세운동 참가와 신사참배 거부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폐교됐던 광주수피아여학교와  
정신여학교를 다시 열고  
정신여자중학교 교장, 정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다.  
평생 민족교육과 여성교육에 애쓰며  
실천적 기독교여성교육자의 삶을 살아온 김필례 선생은  
1972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2021년 제76회 광복절에  
건국포장(建國褒章, National Foundation Medal)을 수상했다.  
저서로 「성경사화대집」과 번역본 5권이 있다.



정신여학교 스승의 날 행사에서 (1966)  
사진\_ 도서 「김필례 그를 읽고 기억하다」  
(열화당 영혼도서관 펴냄)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http://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미·산후조리사·아기돌봄미 3705-6013~5  
간병사 858-4516~7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http://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http://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http://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녀수련관** [www.gangnamyc.or.kr](http://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or.kr](http://www.bongchun.or.kr) 888-7983